

<耽羅別曲>에 드러난 濟州의 文化 空間 연구*²⁷⁾

박수진**

<차 례>

1. 문제제기
2. <耽羅別曲>의 내용과 주제
3. 작품에 드러난 濟州의 文化的 특징
4. <耽羅別曲>에 실현된 文化地理的 양상
 - 1) 濟州만의 독특한 문화적 성향
 - 2) 소외된 下層民의 공간
 - 3) 現實과 幻想의 괴리
 - 4) 안쪽과 바깥쪽의 변증적 성격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耽羅別曲>을 분석, 검토하여 제주의 문화지리적인 의미를 밝혀 작품의 주제, 가사작품, 공간 등을 토대로 한 문학에서 문화로의 해석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耽羅別曲>은 제주목사로 온 정언 유가 제주의 실태와 지역성을 파악하고자 지은 작품이다. 이는 제주백성들의 생활상을 그린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목민관으로서의 본인의 지위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녹아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하층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그의 愛民정신은 유학을 믿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논리적 차원의 당위가 아닌 현실적, 정감적 차원의 진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耽羅別曲>에서 드러난 濟州의 文化的 특성은 다음 세 가지다. 1) 아담하고 특이한 제주의 歷史, 地理, 自然景觀, 2) 艱難한 제주백성, 3) 독특하고 풍요로운 제

* 이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419).

** 한양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의사소통클리닉 책임연구원

주풍속이다. 이 특징들은 제주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지리지나 역사서를 바탕으로 <耽羅別曲>에 실현된 文化地理的 양상을 다음 4가지로 논의하였다. 1)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적 성향, 2) 소외된 주변부(下層民의 공간), 3) 現實과 幻想의 괴리, 4) 안과 밖의 변증적 성격이다. 이러한 문화지리적 특징은 18세기 제주 공간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제주의 문화 공간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언급하고자 했다.

핵심어 : 탐라별곡, 문화지리, 제주문학, 특이성, 공간, 주변부, 괴리, 안과 밖

1. 문제제기

본고는 <耽羅別曲>을 분석·검토하고, 내용을 살펴 문화지리적인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논자는 단순히 작품에 드러난 공간이 아닌 작품의 주체와 가사작품, 공간이라는 세 층위를 통해 ‘文學’이 ‘文化’로의 해석이 가능한 지 살펴볼 것이다.

지역문화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문화정체성의 확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정체성은 다른 문화와의 차별화, 즉 자신의 문화에서 ‘자기다움’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확립, 강화된다. 이 과정은 한국문화의 기저를 이루는 지역문화에 대한 총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역문화가 지닌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성격으로 지역문화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은 매우 다양하다.¹⁾ ‘文學’은 주체[시적화자], 대상[제재-소재], 텍스트[표현양식]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文化’는 주체[시적화자], 권력[신분], 표상 체계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주체, 권력, 표상체계의 관계에 따라 文化는 변화하기 마련이다.²⁾ 문화연구는 통일성보

1) 정치영,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지역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3집, 정신문화연구, 2007, 63~64면.

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문학연구의 방법론 및 정치학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문학연구와 문화연구는 소재와 방법론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³⁾

이 작품은 1982년 尹石昌에 의해 학계에 처음 소개되었다.⁴⁾ 그는 작가와 작품 내용을 소개하였고, 실학사상을 드러낸 敎訓歌辭라고 규정하였다. 그 뒤에 조동일은 <耽羅別曲>을 紀行歌辭의 범주에 넣었으며⁵⁾, 류연석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敎訓歌辭이면서 紀行歌辭라고 규정하였다.⁶⁾ 또한 尹致富는 <耽羅別曲>의 이본들을 정리하여 단락별 내용의 전개양상과 표현방식을 통해 작품의 미적구조를 고찰하였다.⁷⁾ 가장 최근 발표한 김남형은 <耽羅別曲>의 내용과 작가의식을 검토하였다.⁸⁾ 이전의 논의들은 대부분이 장르를 규정하거나 작품의 이본을 대조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작가의식을 언급하였다.

<耽羅別曲>는 제주에 부임한 작가가 제주백성들의 생활을 보고 느낀

2) 문학에서 주체는 시적화자를 말하며, 대상은 주체와 대립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텍스트는 글의 표현양식이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글쓰기 방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은 문화의 한 부분에 속한다. 문화를 설정하는 주체는 이야기를 진행하는 시적화자를 말한다. 이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의 특정 행위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권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주체는 시적화자의 생각과 감성을 표상으로 한 텍스트를 만들어낸다. 즉, 텍스트는 주체의 사상을 글 속에 담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트는 주체의 행위에 따라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공간에 따라 권력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 권력은 다시 표상체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줄고,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문화지리학적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0, 23~26면.

3) 신영현, 「문학적 영화읽기와 문화연구적 영화읽기 : 영화 <장미의 이름>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2004, 211면.

4) 윤석창, 「<耽羅別曲> 연구」, 『명지어문학』12호,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1982, 81~97면.

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94, 360~361면.

6) 류연석, 『한국시가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246면.

7) 윤치부, 「<耽羅別曲>의 구성과 표현」, 『제주교육대 논문집』24, 제주교육대학교, 1995, 45~46면.

8) 김남형, 「정언유의 <耽羅別曲>에 대하여」, 『한국학논집』36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08, 351면.

것을 기록한 가사작품이다. 논자는 바다를 건너가야 도달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인 ‘濟州’를 선택하여 제주에서 창작된 작품으로 공간과 일상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작품에서 제주의 공간사적 명제들을 뽑아 주제들과 연결하여 지역적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주체와 권력, 표상체계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화현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耽羅別曲>의 내용과 주제

<耽羅別曲>은 ‘濟州’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濟州’는 우리나라의 남단에 위치한 가장 큰 섬으로, 섬의 동쪽에는 ‘旌義縣’이 있고, 서쪽에는 ‘大靜縣’이 있다. ‘정의현’은 경계까지 80리가 되고, ‘대정현’은 경계까지 81리가 된다. 남쪽은 바다까지 120리이며, 북쪽은 바다까지 1리이다.⁹⁾ <耽羅別曲>의 작가는 1749~1751년까지 제주목사를 역임한 鄭彦儒다. 그의 字는 林宗이고, 號는 迂軒이며, 本貫은 東萊다. 그는 1687년 10월 서울에서 태어나 78세에 별세하였으며, 1796년에는 淸白吏로 추천되었다. 63세에는 제주목사로 부임 받아 그곳 정황을 살피면서 작품을 썼다.

<耽羅別曲>은 ‘濟州’의 설명과 단편적인 역사적, 지형적인 특징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작품에 드러나게 되는 개인적 정서와 느낌 등은 서술되지 않았다. 가사의 특성은 조선 후기로 와서 한편에서 향토적 정조와 결합이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질량이 확장되면서 풍부한 기록성을 갖게 되었다.¹⁰⁾

9) 이원진, 김찬흠 외 역,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12면.

10) 임형택, 「신발굴 자료를 통해본 가사의 재인식」, 『옛노래, 옛사람들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5, 348~349면.

	단락별 주제	작품 구조	단락별 분류
1	제주의 역사	제주 역사·지리적 특성과 목사 부임과정	탐라~ 보닉시니
2	지리적 환경		한 조각~ 장대하다
3	제주목사의 부임과정		영문을~ 공해로다
4	목사부임행사 장면 묘사		관덕정~ 위의로다
5	열악한 자연환경에서의 백성들	백성들의 생활상	연회각~ 쏘이로다
6	제주백성들의 생활상		무엇으로~ 식갓도다
7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위로		슬푸다~ 서러하랴
8	한라산의 빼어난 경관	아름다운 풍경의 감상과 여흥, 歸還	하물며~ 무어시니
9	영화로웠던 모습 회상		놉흔 봉~ 지여 잇네
10	제주목사의 구진 순행		구진이~ 쏘이로다
11	순역 중 벌어진 여흥장면		차라히~ 시작이라
12	휴식 후 12목장 방문		십이장~ 장하도다
13	순역 후 관아로 귀환		일장에~ 치우신가
14	목민관으로서의 고뇌	감회	고신의~ 푸러바리거라

<耽羅別曲>은 크게 4단계로, 단락별로 14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제주의 지역적 모습과 더불어 목사 부임과정을 언급한 부분에서부터 백성들의 생활상, 아름다운 제주에 온 감회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제주목사가 되어 제주에 오게 된 이후의 상황과 제주백성들의 생활상을 보고 느낀 목민관으로서의 심정을 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耽羅別曲>에서 시적화자는 목민관으로서 본인의 위치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녹아내고 있다. 하층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그의 愛民정신은 유학을 믿는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에게 논리적 차원의 당위가 아닌 현실적, 정감적 차원의 진정성을 지닌 것이었다.

3. 작품에 드러난 濟州의 文化的 特性

濟州는 섬이다. 섬은 대체적으로 토지가 척박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았

다. 만약, 흉년이 들면 육지에서 식량을 수송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운송수단이 빈약했던 옛날에는 굶어 죽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자연재해로 굶어 죽어가는 백성을 구출해야 하는 관리나 지방의 아전들은 백성을 구출하기보다 貪虐에 빠지는 경우가 흔했고, 백성들로부터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이 많았다. 그러므로 제주백성들은 관아에 대한 不信과 反抗이 깊어졌다.¹¹⁾ 이러한 섬의 특성을 바탕으로 <耽羅別曲>의 주제적 특징과 조선시대 제주의 문화적 특징을 나타내고자 한다. 특히, 작품 도입부분에는 제주의 지역적, 지형적, 역사적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1) 아담하고 특이한 제주의 歷史, 地理, 自然景觀

<耽羅別曲>의 첫 부분에는 지리적, 지형적, 역사적인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耽羅’가 어떤 곳이고, 왜 시적화자가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이유를 드러내야 했다. 여기 나타난 제주의 역사, 지리, 자연경관은 정언유가 부임할 당시인 1794년의 상황이다. 작품의 지형적, 역사적 내용을 살펴보자.

耽羅 넷 都邑이 몇千年 基業이고 星主王子 디난 後의 物換星移 오릿거다
城郭이 곳치시니 人民인들 넷 곳달손가 聖朝의 臣屬히미 命吏을 보닛시니

‘耽羅’는 濟州의 옛 이름이다. <耽羅志>에는 ‘耽羅’ 외에 다른 이름들도 함께 전한다.¹²⁾ 첫 구절에서는 耽羅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耽羅’라는 지역이 조선시대 이전 高麗, 新羅 혹은 그 이전에도 나라가 존재했음을 드러내면서 몇 천 년 전에 만들어진 역사 깊은 耽羅의 모습을 연상

11) 김영화, 「제주 역사와 문학」, 『耽羅文化』17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7, 3면.

12) 제주는 본래 九韓의 하나다. 혹은 毛羅라고 일컬었고, 혹은 耽羅, 혹은 耽牟羅라고도 일컬었다. 전라도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지역의 너비가 400여 리이다. 이원진,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12면.

하게 하였다. ‘耽羅’라는 지명은 나라 이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제주는 하나의 도읍으로 소속되었고, 이에 地名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성주와 왕자는 제주설화에 전하는 인물들이다. 신라 때부터 불린 성주와 왕자는 오래된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세상이 어떤 한 시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변천되었음을 의미하며,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역사성을 나타낸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변화된 耽羅임에도, 하물며 한 세대 100년도 못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耽羅도 옛날 같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이는 오랜 역사를 반영한 耽羅의 모습을 그린 구절이다. 마지막은 ‘耽羅’가 성스러운 조선에 속한 지역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작가 본인이 임금의 명으로 벼슬아치가 되어 耽羅에 가게 된 이유를 적어 타당함을 알리고 있다.

흔 도각 彈丸小島 大海에 썬잇난디 三邑을 눈화안쳐 솟발로 버려시니 山
南은 兩縣니오 山北은 州城니라 土地는 기을미여 民物은 어디흐니

두 번째 단락은 濟州의 지리적 환경을 언급하고 있다. ‘한 조각 탄알 같은 작은 섬’이라 하여 작고 아담한 濟州의 지역적 특성을 서술하였다. 큰 바다에 떠 있는 조그마한 섬은 넓은 바다와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濟州가 바다에 비해 ‘작은 섬’임을 강조하였다. 濟州는 3개의 읍으로 나누어졌으며, 그 모양은 마치 솔의 발과 같다고 하여 세 읍의 위치를 설명하여 작은 섬이 아님을 언급했다. 텍스트에 언급된 산은 濟州의 가장 큰 ‘한라산’이다. 산 아래 남쪽은 두 현으로 나누어졌으며, 서쪽은 ‘대정현’을, 동쪽은 ‘정의현’이라 하여 지형적인 특징을 잘 나타냈다. 또한, 산의 북쪽에는 고을의 도읍으로 북쪽에서 남쪽 두 현을 관장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토지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작품에서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구절은 백성들의 물건의 장대함으로 그 넓이와 크기가 대단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五六月 盡力하여 西城을 바라더니 造物이 忌劇하고 天時도 그릇되어 惡風과 甚흔 霖雨 히히마다 孔極하니 田畝을 도라오면 兵馬로 蹴발론닷 各穀을 둘러보면 鐵鞭으로 蹴쳐는듯 나문 이삭 주어 너니 坼 썩은이로다

제주의 지형적 특징인 바람과 물이 많은 風土를 나타내고 있다.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환경에 비해 지형적으로 사람들이 살기에는 열악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악풍과 줄곧 그치지 않는 비는 곡식을 만드는 데 심한 방해물들이다. 그러므로 제주의 환경적 요소는 농사를 짓기에 최악이다. 더불어 하늘은 악풍과 줄곧 그치지 않는 비를 동반한다. 이는 해마다 매우 심하게 발생하여 제주백성들은 ‘밭과 도랑을 돌아오면 병마로 짓밟는 듯’이라 하여 농사짓기 어려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곡식을 둘러보면 ‘쇠 채찍으로 마구 내려친 듯’이라 하여 모양이 엉망인 상태를 드러냈다. 심지어는 곡식의 남은 이삭은 빈 껍질뿐이라 하였다. 시적화자는 점층법을 이용하여 환경적, 지리적인 열악함을 드러냈다. 이는 제주만의 환경적, 지형적 원인으로 흉년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시적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하물며 漢拏山이 天下의 일흠 잇서 瀛州가 奇異함이 三神山의 淸淨하니 老人星 발근 光彩 壽域을 여러 노코 金剛草 푸른 빛치 白髮을 검게 하니 넋날의 秦皇漢武 못보아 遺恨인디 너희는 仙分도화 이곳에 生長하여 瀛室을 갓희 두고 白鹿潭 우희 안자 流霞江 그득 부어 老仙과 酬酌하니 烟火食 不關 커든 다른 念慮 이실논가 드틀거시 무어시며 求홀 거시 무어시니

한라산의 빼어난 경관을 묘사한 부분이다. 한라산의 경관은 기이한 仙界를 나타내고 있다. 한라산의 모습은 천하에 이름 나 있는 것처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瀛州’라 불리는 ‘濟州의 기이함’을 형상화하였다. 여기서 시적화자는 濟州의 한라산을 삼신산의 하나로 표현하였다. ‘노인성 밝은 광채’는 ‘壽域’을 나타내며, ‘壽域’은 다른 지방에 비해 장수하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고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별의 광채를 밝게 열어 놓았

다는 것은 이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암시해 주고 있다. 또한, 금강초의 푸른빛은 백발을 검게 한다고 하여 금강초의 신비함을 드러냈다. 이 구절은 不老長生의 신비로운 상황을 ‘신선세계’에 빗대어 설명한 것이다. 시적 화자는 ‘진시황’과 ‘한무제’도 누릴 수 없었던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한라산을 보지 못함을 한스럽다고 한다. 神仙의 인연으로 제주에는 아름다운 한라산을 곁에 두고 있는 제주백성들을 위로하며, 한라산이 신선세계임을 드러낸다. 瀛室만으로도 아름다운 한라산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지만, 瀛室보다 하늘과 가까운 백록담 위에 앉아 은하수를 바라보며 늙은 신선과 술을 놓고 마시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시적 화자는 본인이 즉 신선임을 드러낸 부분이기도 하다. 제주는 완전히 갖춰진 상태이며, 걱정 없는 본인의 삶을 신선의 삶에 빗대고 있다.

2) 艱難한 제주백성

제주백성들은 매우 가난하고 고달프다. 이 모습은 제주목사로 온 정언유의 눈에 비친 제주백성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제주의 지형적, 지리적인 모습으로 인해 만들어진 제주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품을 통해 살펴보자.

延曦閣 잠간 쉬여 巡歷길 밋비 나서 海方도 돌너 보며 風俗도 살펴보니
어엿불스 우리 百姓 무슴 일로 偏苦호여 衣食이 艱窘퀸니 興味가 잇실손가
八陽足踏 계우호여 薄田을 耕作하니 자른 허미 저근 보십 辛苦히 밋갓고아

‘연희각’은 업무를 보는 곳으로 ‘전청’ 혹은 ‘상아동헌’이라고도 한다. 먼 길을 왔을 시적 화자는 잠시 휴식한 후 바로 업무에 임한다. 시적 화자의 첫 번째 임무는 제주도 전역을 돌아보는 것이다. ‘海方’은 ‘海防’의 잘못된 표현인 듯하다. 그 이유는 절제사와 방어사의 임무가 외세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 드러난 ‘海方’은 바다를 防備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시적화자는 제주목사로서 제주의 실체를 알기 위해 이 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목민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한다. 시적화자는 제주의 풍속을 살펴보던 중, 제주백성들을 발견하여 그 모습을 묘사한다. 제주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원인이 드러나지 않지만, 의복과 음식이 가난하고 근색한 모습과 그들의 표정을 통해 흥미 없음을 나타낸다. 게다가 제주백성들은 농사지을 밭이 없어 걸어 두루 돌아다니다가 겨우 땅을 발견하고서야 농사짓는 모습을 묘사한다. 제주는 지형적 특성상 짧은 호미와 작은 보삽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게 가꾼 곡식들을 5~6월에 힘을 다해 곡식을 거둘 것이라 믿어 태평성대를 기다린다. ‘西城’은 ‘瑞星’의 잘못된 표현인 듯하다. ‘西城’은 서쪽 성을 나타내지만, ‘瑞星’은 태평성대에 나타나는 상서로운 별을 가리킨다. 그러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작가의 염원으로 풍년이 오지 않는다. 이는 곧, 지독한 굶주림으로 인한 괴로움을 나타내는 구절이며, 태평성대를 꿈꾸는 농민들의 심정을 읊은 부분이다. 그러므로 ‘瑞星’이라 해야 옳다.

무어슬 公債 갑고 어디 구러 사라날고 거리거리 모든 飢民 駕轎잡고 니룬
 말리 설러울스 울리 性命 나라희 달려시니 流民圖 움겨다가 人君겨신디 알
 외고져 가족웃 풀戰笠이 이 무슨 衣冠이며 모밀밥 橡實粥이 괴 무산 飲食일
 고 歲歲예 國恩 입어 羅鋪移轉 虛費흔니 請粟도 늦치 업고 生計도 茫然흔니
 牧子一族 鮑作 구실 이예서 더 설우며 船格의 貿易 무리 괴 안이 難堪흔가
 滄溟이 限隔흔고 邦禁이 嚴截흔니 살곳예 못가기는 紇干山언 식곳도다

제주백성들의 생활상을 드러낸 부분이다.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나타냈다. 나라의 세금과 먹고 살 것들에 대한 막막한 세상을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백성들은 모두 굶주려 거리를 누비고 있다고 제주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한다. ‘駕轎’는 지체 높은 사람을 가리킨다. 여기서 제주목사 자신을, 한편으로는 한양에 있는 임금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駕轎잡고’는 시적화자가 제주백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내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낸 곳이다. 제주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이는 곧 나라 전체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 있다고 하였으며, 나랏일을 하는 시적화자 역시 책임이 있음을 드러낸 구절이다. 제주백성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탐관오리들의 횡포는 여전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제주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타향을 떠돌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가죽 옷, 풀 전립은 의관이 아니며, 메밀밥과 도토리 죽 역시 음식이 아니라고 하여 의관과 음식을 통해 시적화자는 간난한 제주백성들의 생활상을 한양에 계신 임금께 알리고자 한다. ‘羅鋪移轉’은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들이 굶주림 때문에 육지로 도망가는 것을 막고자 전라도 임피에 마련해 둔 호미를 제주도로 실어 오는 것을 말한다. 어렵게 구한 곡식도 허비하니 곡식을 구하는 것도 면목 없고, 생계 역시 막연하다며 어려운 제주백성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나라의 목장에서 소와 말을 돌보는 사람과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들은 더 서럽다며 제주백성들의 열악한 상황을 더욱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시적화자는 제주와 제주백성들의 모습을 ‘푸른 바다는 한계나 경계가 막혀 있고, 나라에서 금하는 것은 엄하게 다스린다’고 하였다. 본인이 살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곧 흘간산의 언 새와 같다며 제주백성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시적화자가 나타낸 ‘흘길산’은 ‘흘간산’의 잘못된 표기이다. 작품에서 인용된 ‘흘간산의 언 새’는 굶주림에 탈출할 길이 없음을 나타내며, 제주백성들의 현실이 흘간산의 뾰뾰 언 새임을 비유하고 있다. 제주백성들의 고된 삶을 일컬으며, 얼어서 어디든 날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토로한 부분이다. 이는 육지로 나갈 수 없고, 바다에로 뛰어들 수도 없는 제주백성들의 進退兩難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구절이다. 또한, 시적화자는 제주지형의 특색을 통해 목민관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힘들어하는 모습도 잘 드러내고 있다.

슬푸다 너의 艱苦 너 어이 모르리오 힘되로 救濟키난 官長에게 泣었스나
견뎌여 지닌기난 네 마음에 달였시니 글열사록 惕念하야 常히 心性 保全하
야 天恩을 닛지 말고 父子兄弟 相愛하면 玉皇이 구버보셔 福祿을 주시나니

窮困을 恨치 말고 네 道理 盡心하면 其中에 榮華 잇서 貧賤을 버셔나니 넋
時節 도라보면 그 안니 알일인가

목민관 정언유가 제주백성들의 간난한 모습을 위로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백성들의 간난한 모습을 드러내며, 시적화자 역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슬퍼하고 있다. 다음 구절은 어려운 상황에 구제하는 것은 관장 즉, 본인에게 매여 있다며 목민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낸 구절이다. 백성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그럴수록 두려운 마음도 크다는 것을 위로한다. 그러나 이는 가장 기초적인 윤리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고는 일이 해결되지 않음을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하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자,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영화로움이 있을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곤궁함을 한스럽게 여기지 말고 도리를 진심으로 다하라고 위로한다. 즉, 착한 행동은 복을 불러온다는 인과응보적 사고를 녹아냈다. 예전에 누렸던 영화로움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을 쉽게 잊을 수 있다며 이전 어려웠던 상황을 회상하게 한다.

3) 독특하고 풍요로운 제주풍속

제주풍속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민간신앙을 가지고 있다. 濟州의 형성설화를 바탕으로 마을 곳곳에 형성된 설화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제주를 나타낼 수 있는 제주만의 독특한 생활습관이나 특산품 등의 여러 가지 대상들을 통해 제주민속을 나타냈다. 이 민속적 부분들은 제주의 특징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작품에서 제주민속을 언급한 내용이다.

삼성신 소스는後 民俗이 淳和하니 歲事도 豐登하고 人畜도 蕃盛하여 집집이 橘林이오 곳곳이 駿馬너라 御乘도 예셔나고 祭牛도 예셔나니 國畜도 盛커니와 私屯인들 저글년가 飛龍갯튼 宛馬種은 各牧場의 가득하고 黃金갯튼 洞庭橋은 公私園에 香년 나니 和平한 別天地을 前古의 일너시니 조흔 썩 그

세계에 너희처로 서러하라

시적화자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이방인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제주가 생성된 후의 영화로웠던 모습과 생활을 회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모습을 반영한다. 첫 부분은 제주가 생성된 민속적, 설화적인 요소로서, 제주 형성신화인 <삼성신 신화>를 언급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민속이 순화되어 ‘濟州’만의 文化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적 성향을 완성하였고, 이는 영화로운 濟州의 모습을 뒷받침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예로, 세상 일과 농사일이 모두 잘 되었음을 언급하며, 사람과 가축 역시 번성한 모습으로 과거의 번성하고 영화로웠던 때를 나타냈다. 또한, 집집에는 굴 숲을 이루고, 곳곳에는 잘 달리는 말이 있다고 하여 여느 지역과는 다른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임금이 타는 말, 제사 지낼 때 쓰이는 소, 나라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모두 이곳에서 나고 자란 것들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키우는 가축들도 적지 않다며 과거 제주의 번성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말’은 나는 용과 같은 완마종이 목장에 가득하고, 굴은 황금 같은 동정굴이 공사원에 향이 가득하다고 하였다. ‘말’과 ‘굴’이 야말로 제주에서는 최고의 품질을 키울 수밖에 지형적 조건임을 의미한다. 이렇듯 평화롭고도 별천지인 제주가 예전부터 번성한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말, 소 등의 가축들과 굴을 통해 예전의 번성한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무공해의 순수한 자연을 간직한 제주의 독특하고 풍요로운 풍속을 살펴보았다.

十二場 차례 지여 往來하며 불슬피니 무리무리 도든 말리 구름인가 비든
인가 壯觀이 더호기는 山馬點烙릴로다 木柵을 구지 겹고 一時에 모라너니는
는듯 쉼노는 듯 巖谷이며 林藪로다 북소리 旗幟 빗히 山獸도차 너드르니 豪
健호 모든 將校 다토와 지조비니 獐鹿도 만커니와 武勇도 壯호도다

시적화자는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제주 살피는 일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 시적화자는 ‘12목장’을 왕래하면서 한양에서 볼 수 없었던 그곳만의 광경을 묘사한다. 목장에는 무리지어 도는 말들이 있고,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모습이 구름인지 비단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여 건강하고 튼튼한 말들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또한, 말에 낙인을 찍는 모습은 한양에서 구경할 수 없는 멋진 광경임을 언급한다. 말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은 바위계곡과 수풀 높을 돌아다닌 것 마냥 나는 듯, 뛰노는 듯 하다며 말 모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조정에 올릴 산짐승을 사냥하는 장면으로 장교들의 용맹한 모습을 보여준다.

‘濟州’는 한양에 비해 많은 것이 너무 달랐다. ‘濟州’는 섬이라는 독특한 지형적, 지리적인 이유로 민속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한양과 그 주변 지역과 다른 특징들을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濟州의 독특한 文化는 한양과의 거리가 멀고 가까운 차이와는 상관없이 다른 여느 섬들과는 다르게 형성되었다. 中央과 가까운 지역은 소통의 발달로 문화적 독자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濟州’는 육지와 많이 떨어져 있고, 섬이라는 지형적 특징으로 ‘漢陽’의 문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4. <耽羅別曲>에 실현된 文化地理的 양상

삶은 공간이나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공간, 장소와 삶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공간을 소거한 상태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空間’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에 중요성을 잇고 산다.¹³⁾ 이 장에서는 문학텍스트가 문화지리학적 양상들을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논하고자 한다. 濟州를 소재로 한 지리지도, 가사문학도 많지 않다. 그 중에서 유배자의 신분이 아닌 제주목사가 가사작품을 창작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耽羅別曲>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자는 <耽羅別

13) 박승규, 『일상의 지리학-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묻다』, 책세상, 2009, 18면.

曲>을 통해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적 성향과 더불어 중심의식과는 동떨어진 소외된 주변부로서의 모습을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한라산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을 토대로 현실과 환상의 괴리적 성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안과 밖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살펴 제주백성들과 시적화자와의 관계를 드러내 문화지리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적 성향

‘濟州’는 濟州만의 독특한 文化를 형성하고 있다. 언어뿐만 아니라 풍속 또한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지닌다. ‘濟州’는 다른 어떤 지역적 특징보다도 더 독자적인 文化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느 지역들과는 달리 다른 지역들 사이의 소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전에 육지사는 사람은 ‘濟州’에 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가기 어렵고 먼 곳인 제주는 죄인들의 유배지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 덕분에 ‘濟州’ 역시 유배지로 활용되어 流配文學이 발달하게 되었다. 논자는 《濟州邑誌》, 《地理誌》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濟州의 독특한 地理的, 文化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地理誌》나 《實錄》에서 볼 수 있는 제주의 특징은 많다. 하지만, 지형적 특징을 그린 《耽羅誌》를 살펴보자.

본래 九韓의 하나이다. 혹은 毛羅라고 일컬었고, 혹은 耽羅, 혹은 耽牟羅라고도 일컬었다. 전라도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는데, 지역의 너비가 400여 리이다. 처음에 高乙那·良乙那·夫乙那 형제 3인이 그 땅을 나누어 살면서 사는 곳을 徒라 명하였다. 신라 때에 高厚·高淸과 막내(季)가 바다를 건너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뵈었다. 왕이 기뻐하여 厚를 星主라 부르고, 淸을 王子라 부르고 막내를 徒內라 불렀다. 국호를 耽羅라고 하여 내려주었다..... 북쪽에는 큰 바다요, 남쪽에는 높은 산이로다. 집집마다 굴과 유자요, 곳곳마다 駿馬로다.¹⁴⁾

14) 이원진, 김찬흡 외 역, 위의 책, 푸른역사, 2005, 12면, 29면.

위는 《耽羅誌》에 언급된 [건치 연혁]과 [형승]의 일부이다. 濟州의 地名과 더불어 濟州가 형성된 說話, 地理적·지형적 특징, 특산품 등을 나타냈다. 濟州는 地理적으로 全라도 남쪽에 있으며, 너비는 400여 리가 되는 섬이다. 북쪽에는 큰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높은 산이 있다. 또한, 신라시대부터 ‘耽羅’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濟州는 집집마다 굴과 유자가 가득하고, 駿馬는 곳곳에 있다. 濟州는 여느 지역과 다른 지형적, 地理적 특색으로 빚어낸 결과물인 ‘특산품’으로 濟州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地理誌》나 《實錄》에서는 濟州나 漢拏山을 드러낸 작품들은 많다. 그 중에서 최익현의 <遊漢拏山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점 탄환처럼 외로운 섬이지만 망망대해의 砥柱요, 우리나라 삼천리를 지키는 문(水口捍門)이므로 왜구들이 감히 엿보지를 못한다. 산과 바다에서 나는 맛이 좋은 음식(山珍海錯) 중에 임금님께 바치는 것이 여기에서 많이 난다. 공경대부와 백성들의 일상에 쓰이는 물건하며 제주의 6~7만 호가 경작하고 채취하는 자원 역시 모두 이 산에서 얻어 충족되고 있다. 그 혜택과 이로움이 백성과 나라에 미치는 바가 金剛山이나 智異山처럼 사람에게 관광이나 제공하는 산들과 어찌 같이 놓고서 말할 수 있으랴! 뿐만 아니라 이 산은 한갓진 바다 가운데 있기에 드뭇고 기온도 몹시 차므로 품은 뜻이 견고하고 근골이 강한 자가 아니면 결코 올라갈 수 없다.¹⁵⁾

1875년 5월에 지어진 작품이다. 작가는 濟州의 모습을 ‘한 점 탄환의 외로운 섬’이라 하였다. 濟州는 아득한 큰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이다. 하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砥柱라 표현한다. 砥柱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절개를 잃지 않음을 의미한다. 濟州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문이라 하여 왜구가 쉽게 침입하지 못함을 강조한다. 또한, 제주는 좋은 음식이 많이 나는데 그 중 임금이 먹는 귀한 음식들이 많이 난다고 언급한다. 더불어 여러 사람이 쓰는 용품 등이 한라산에서 충족된다고 하여 한라산의 고귀한 정기

15) 『역주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5, 60면.

를 나타낸다. 한라산은 형세가 험하여 품은 뜻이 견고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결코 오를 수 없다고 하여 한라산의 위상을 드러낸다. 이렇듯 제주 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드러냄과 동시에 천연 자원의 보고라고 할 만큼 귀중한 섬임을 강조한다.

소금 굽는 것만이 그러할 뿐 아니오라, 고기잡이와 미역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미역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으로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곳곳에 다 있사온데, 제주에서 나는 것이 더욱 많아서 土民이 쌓아 놓고 부자가 되며, 장삿배가 왕래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모두 이것이옵니다. 이 세가지는 하늘이 내고 땅이 낳고 하되, 하늘과 땅이 유독 우리나라에만 후하게 하여 준 것이니, 실로 우리나라의 진기한 재물이옵니다. ... 제주는 內地가 아니온 데 생산되는 것이 가장 번창하다.¹⁶⁾

《世宗實錄》 29년의 내용이다. 《實錄》에서 언급한 ‘濟州’는 소금 채취, 고기잡이, 미역 따기를 한다. 그 중에서도 미역은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것이라며, 濟州의 특수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생산되는 미역은 제주의 특산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역을 진기한 재물이라 한다. 그 외에도 제주백성들은 말과 말총, 꿀 등을 생산하여 자급자족한다. 육지에 사는 장사꾼들은 좋은 말을 사기 위해 제주에 왕래하였고, 이들을 상대로 한 遊女들도 관기 가운데 넉넉한 자는 비단옷을 입을 정도로 말 교역이 활발하였다.¹⁷⁾ 제주 말은 가장 튼튼하게 길러졌고, 그 때문에 제주 말 한 마리의 가격은 노비 세 명의 가격과 같다고도 전한다. 이러한 정황은 제주의 자연경관이 말을 키우는 데 가장 적합한 곳임을 알게 한다. 말(馬)의 역사로 濟州의 歷史를 드러낼 정도이니 그만큼 제주와 말은 긴밀한 관계임¹⁸⁾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말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지 평범한 제주백성들에게는 어렵없는 일이다.

16) 《세종실록》 29년 9월 임자조.

17) 金尙憲, 『南槎錄』, 1601년.

18)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87면.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적 성향을 드러내는 주체는 ‘제주백성’이다. 그들은 섬사람들로 육지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 공간인 제주의 모습을 지켜 나가고 있다. 즉, 제주백성들에게 ‘제주’는 공간과 대상을 동시에 넘어서는 그들의 삶 자체이다. 제주백성들은 제주에서 형성된 문화적인 성향들을 지형적인 것들에서 많이 발견하였다. 그러나 제주는 지형적 특징, 문화적 영향으로 살기 어려운 곳으로 농락되어 버렸다. 특히,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제주의 주요 수입품들은 제주에서 생산되지 않고 육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쌀, 소금, 옷감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반해 수출품은 제주 특산품으로 바다와 가까운 지리적, 지형적 특징이 드러나는 미역, 말, 굴 등이었다. 그러나 지형적 특징과 운반체계의 열악한 현상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의 교환 역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제주백성들은 육지 사람들에 비해 열악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러한 문화지리적인 현상을 새로 부임한 목사에 의해 글로 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소외된 주변부(下層民의 공간)

오래 전 ‘耽羅’는 하나의 나라였다. 그러한 ‘耽羅’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야 조선에 속한 지방으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운영하는 나라였고, 이 중앙집권체제는 中央과 周邊으로 대립과 차별을 가져왔다. ‘濟州’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중앙과 아주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濟州’라는 곳은 다른 지방에 비해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말’이라는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물을 건너는 배를 꼭 타고 가야 했다. 그러므로 여행으로 가거나 관직을 맡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보통 평민들에게 제주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다. 또한, 제주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항상 ‘周邊’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주변은 중앙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앙에서 미치는 세력은 점점 더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中央’은 중앙집

권체제에서 권력과 출세를 나타내는 상징공간이다. 따라서 제주 역시 먼 거리로 인해 세력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언유’는 영해부사로 있었지만, 영해(지금의 경북 영덕)보다 더 먼 곳인 ‘濟州’에 부임하여 그곳 목사가 된다. 그가 죄를 지어 제주로 온 것이 아닌 그의 청렴결백하고 뛰어난 통치력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언유는 원래 권력에 욕심이 없으며, 오직 굶주린 불쌍한 제주백성들을 위해 위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의 청렴함은 《朝鮮王朝實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⁹⁾ 임금이 그런 청렴한 그를 제주까지 보낸 이유는 소외된 주변부까지 두루 살피고자 하는 임금의 너그러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종 《地理誌》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외된 주변부의 모습을 찾아 그 특징들을 살펴보자.

제주 지방의 말은 알아듣기 어렵다.: 촌백성들의 말은 알아듣기 어려우며, 말하는 억양이 앞은 높고 뒤는 낮다. 김정의 「제주풍토록」에 “이곳 사람들의 말소리는 가늘고 드세어서 바늘로 찌르는 것같이 날카로우며 또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많다.”고 하였고, 「주기」에는 “말에는 특이한 소리가 많아서 서울을 ‘서나’라 하고 숲을 ‘고지’라 하며, 오름을 ‘오름’이라 한다. 툇을 ‘콧’이라 하고, 입을 ‘굴레’라 하며, 굴레를 ‘녹대’라 하고, 재갈을 ‘가달’이라 한다. 그 말소리 따위가 이와 같다.”고 하였다.²⁰⁾

《耽羅志》는 여느 지역과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언어’ 때문이다. 언어는 같은 나라 사람들이 소통을 위해 함께 사용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백성들의 말은 알아듣기 어렵다거나 혹은 특이한 소리가 많다고 한다. 이는 그들의 특수성으로 소외된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말소리가 가늘다’, ‘드세다’, ‘바늘도 찌르는 듯 날카롭다’는 등의 부정

19) 정언유에 관한 《朝鮮王朝實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가 제주목사로 부임되기 이전부터 제주목사에 부임된 후의 일로 간추려진다. 영조 24년(1748)~영조 25년(1749)에 이르는 기록에서는 조세 징수의 폐단을 상소하는 내용, 고을의 폐단을 고발한 내용, 제주백성을 구제하도록 한 내용 등이 있다.

20) 이원진, 김찬흡 외 역, 위의 책, 푸른역사, 2005, 23~24면.

적인 모습도 드러난다. 게다가 한양에 있거나 벼슬살이를 하고 있는 일부 사대부들은 제주백성들을 가리켜 ‘촌백성들’이라며 그들을 하층민으로 여겼다. 제주백성들의 입장에서 언어적인 문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제주는 한양에서의 삶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지리적, 지형적 형편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고립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에 제주백성들은 스스로 소외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역성과 더불어 제주의 소외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풍속은 어리석고 검소하지만 예를 지키고 양보함이 있다: 풍속은 음사를 숭상하여 산과 숲, 내와 못, 높은 언덕이나 낮은 언덕, 물가와 평지, 나무와 돌 따위를 모두 신으로 섬겨 제사를 베푼다. 매년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남녀 무당이 주신을 모시는 기를 함께 받들고, 역귀를 쫓는 행사를 벌이면서 징과 북을 앞세워서 마을을 나들면, 마을 사람들이 다투어 재물과 곡식을 내어 제사한다.²¹⁾

제주풍속의 미개함을 제시한 부분이다. 애니미즘, 샤머니즘적 신앙의 대부분이 원시적이기 때문에 유학을 숭상한 조선시대에는 제주가 미개한 지역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학을 숭상하는 사대부층의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들은 제주풍속 자체를 음사하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민간신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無知한 향촌사람들의 대부분은 민간신앙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성향과는 무관한 향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제주는 육지와와의 거리가 멀다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 풍속 자체가 발달하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제주의 신화, 설화가 많은 이유 역시 이 민간신앙의 발달로 발생한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는 대체적으로 사상적 차이 즉, 중앙집권체제에서 숭상하는 유학과는 거리가 있어 소외되고, 미개한 부류로 느껴졌던 것이다.

21) 이원진, 김찬흡 외 역, 위의 책, 푸른역사, 2005, 24면.

경직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주기」에 “서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벼슬하기가 어렵다. 제주 지방 사람으로 재간과 물망이 있는 자는 관아에서 일 보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경직이 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제주풍토록」에 “품관 이하 말단 벼슬아치에 이르기까지 중앙의 고관들과 뇌물로 교제를 하는데, 그 중에서 세력을 떨치는 자는 진무 자리를 얻는다. 다음은 여수, 그 다음은 서원, 지인 및 공생인데, 각기 이익을 얻기 위해 바쁘니, 사소한 일에도 모두 뇌물을 주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그들은 의리와 염치가 무엇인지 아랑곳하지 않고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모진 자가 어진 이를 박해한다. 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임금의 교시도 내리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리들은 육한처럼 탐오하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간혹 관리 중에서 염치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으며, 백성들은 그 은혜를 못내 감격해하지만 저 탐오한 무리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는다”고 하였다.²²⁾

제주의 어리석은 풍속과 백성들의 검소한 모습을 드러낸 부분이다. 제주에는 민간신앙이 매우 발달해 있다. 그러나 이 풍속은 유학의 관념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제주백성들은 그들 나름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지만, 벼슬을 하고 있거나 중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개하고 덜 발달된 소외된 문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제주풍토록》에는 벼슬하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은 지역적 특색으로 인한 비리들이 고발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거리가 먼만큼 소외를 당해왔으며, 그로 인해 하층민의 공간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耽羅志》에서는 이외에도 ‘풍속이 유별나고 군사는 사납고 백성을 어리석다’, ‘땅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다’, 혹은 ‘풍속은 미개하고 거리는 멀다’는 부분 등 풍속을 드러낸 구절들을 통해 다른 지역에 비해 소외된 제주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모습은 제주 백성들에게 한양과 다른 지방의 사람들보다 더 소외된 주변부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소외된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중앙관리들의 잘못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제주는 지리적, 지형적 특징으로 인한 거리의 차이, 사회·문화상으로

22) 이원진, 김찬흡 외 역, 위의 책, 푸른역사, 2005, 28~29면.

인한 중앙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고, 이 특색은 지역을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월감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제주는 우월감보다는 소외감이 더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대부층이 그들의 견해를 부각시켜 글을 지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3) 現實과 幻想의 괴리

시가문학에서는 현실세계지만 환상세계처럼 존재하는 공간이 있다. 바로 ‘自然’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自然은 환상세계로, 신선세계를 가리킨다. 그 경치는 현실세계지만 작가가 이를 수 없는 욕망의 양상으로써 ‘환상’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문학은 유선문학이라 한다. 작가가 신선이 되어 仙界를 유람하거나 혹은 제3자의 입장에서 신선이 사는 仙界에서 노니는 모습을 구경하며 그 정취를 상상력으로 드러낸 것을 말한다.²³⁾ 이 작품에서도 역시 ‘자연’을 ‘환상’로 만들어 설명하고 있다.

한라산(漢拏山): 제주성 남쪽 20리에 있다. 鎭山이다. 이름을 漢拏라고 한 것은 하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두미오름’이라고도 하는데, 봉우리마다 모두 평평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두리메’라고도 하는데, 활 모양으로 구부러져서 가운데가 높고 사방 주위는 차차 낮아진 형상으로 둥글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가메오름(釜岳)’이라고도 하는데, 산봉우리에 못이 있어서 물을 저장하는 그릇(貯水器)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높아서 하늘을 찌르고 산세가 대단하여 수백여리에 걸쳐 있다. 산봉우리에 못이 있는데, 지름이 수백 보가 된다. 대정현을 경유하면 험한 산길 하나가 나오는데, 사람이

23) 유선문학의 연원은 일반적으로 굴원의 초사 원유라는 시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유선문학은 단순한 현실에 대한 부정, 현실에 대한 도피는 아니다. 꿈꾸기가 사실임을 믿도록 하는 서문의 장치를 통해 환상의 공간을 현실 속으로 끌어들었다. 그럼으로써 그의 환상은 현실과 긴밀한 긴장 관계를 이루어냈으며 현실에 대해 성찰, 탐색할 긴밀한 긴장 관계를 이루어냈으며, 현실에 대해 성찰, 탐색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었다. 환상체험을 통해 현재와의 단절을 꾀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강화하고 현실 삶의 고통과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덜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 것이다. 샤르트르는 환상성은 인간적인 것을 초월하려는 인간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강민경, 『유선문학과 환상의 전통』, 한국학술정보, 2007, 22~25면.

나무 사이를 따라서 기어오르면 꼭대기에 닿을 수 있다. 만약 꼭대기에서 크게 소리치면 구름과 안개가 사방을 둘러 싸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된다. <음력> 5월까지 눈이 내려 쌓여서 8월까지 남아 있으니 가죽옷을 껴입어야 한다.²⁴⁾

이 부분은 한라산의 정경과 다른 명칭들을 드러내고 있다. 한라산은 산의 모양을 토대로 삼아 명칭으로 삼았다. 즉, ‘한라’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두미오름’, ‘두리메’, ‘가메오름’ 등의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각각 한라산 형세의 특징을 언급하며, 한라산의 명칭을 만들었다. 더불어 한라산의 형세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고, 산세가 대단하다고 하여 장엄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관은 한라산의 기이함을 드러낸다. 이 기이함은 산봉우리에 있는 못을 통해 드러난다. 기이한 광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선이 등장할 때 나타나는 구름과 안개도 같이 언급하여 신비함을 더하고 있다. 이 구절들은 한라산 백록담이 신선세계임을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地理誌》에서도 한라산이 신성한 곳임을 나타냈다.

새벽 참에 떠나 40리를 가니 해가 뜰 무렵 한라산 기슭에 도착하였다. 일대가 비단을 펼친 듯 눈에 들어오니 눈이 부시다. 휘장 같기도 하고 치마 같기도 하다. 모두 벌리어 펼쳐진 것이 다 영산홍으로 붉은 꽃이 곱게 만발하였다. 사이에 소나무와 대숲과 향기로운 풀이 연한 녹색을 이루니 이 때문에 처음부터 흥취가 났다. 보교를 버리고 말을 타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에는 푸른 풀 더미가 귀엽고 잡목은 하늘을 가리웠다. 이들이 모여서 우산과 같이 덮여 있다. 신선 땅의 화초인 구슬 꽃과 구슬 풀이 더부룩이 솟아올라 푸르다. 기괴한 새와 이상한 벌레가 어우러져 험한 바위 깊숙한 곳에서 울어대는데 늙은 산쟁이도 이름을 알지 못하였다. 때때로 인적이 미치지 못한 언덕으로 눈이 갔는데 옆으로 퍼진 소나무와 가는 잔디가 산뜻하고 깨끗하며 그윽하고 고요하다. 마치 신선이 모자를 쓰고 도복을 입고서 은근히 한가롭게 노니는 듯하다. 참으로 진나라 한나라 두 천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한다면 거의 애타게 바라지 않았을까 싶다. 절벽을 안고 등나무 줄기를 거머쥐어 오르는데 좁은 길이 역시 아늑하였다.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24) 이원진, 김찬흡 외 역, 위의 책, 푸른역사, 2005, 31면.

두건을 벗어 머리를 드러내고 등을 구부려서 안장을 붙잡고 거의 10여리를 가니 비로소 하늘과 해를 볼 수 있었다. 이곳이 무릇 산허리이다.²⁵⁾

《南宮博物》에서 한라산 산행을 드러낸 부분으로, 한라산의 신성함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얼마 남지 않은 벼슬살이에 급작스럽게 새벽에 한라산으로 떠난다. 40리 떨어진 곳에 이르러서야 한라산 기슭에 도착한다. 처음 본 한라산 입구의 풍경은 마치 비단이 펼쳐진 듯한 광경에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한라산은 매우 아름답고 신성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라산 입구에는 영산홍이 피어 있고, 더불어 풀과 나무가 우산을 편 모양을 한 자연의 울창함을 나타낸다. 신선 땅에서만 핀다는 꽃과 풀, 기괴하고 이상하다는 새와 벌레는 그곳이 신선세계임을 말해준다. 게다가 연륜과 세상 이치를 아는 늙은 산쟁이도 모르는 이름이라면 인간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한라산에는 세상에 없는 생물체가 존재하는 신성하고도 신비로운 것임을 강조한다. 신선이 금방이라도 나올 듯한 아름다운 경관에 두 나라의 두 천자가 애타게 바랐던, 만족할만한 곳이었다. 높고 험준한 산행의 모습에서도 한라산이 인적 드문 신성한 곳임을 짐작케 한다. 마지막 부분은 시적화자가 옷자락을 걷고, 두건을 벗어 머리를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 관념적, 의식적 행동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으로 신선을 흉내 내며 그곳이 신선세계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내 일찍이 한라산이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고서 한번 올라봄이 소원이었고 장차 평생의 유람을 하려는 뜻을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 “세상에서 소위 영주라고 일컫는 것이 바로 저 산이다.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 가운데 하나인데 어찌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일까?” ... 신선이 사는 땅은 만나기가 어렵고 사람의 일은 어그러지기 쉽다 했습니다. ... 골짜기 안에는 흰 사슴이 있는데 영주초 먹기를 좋아합니다. 이따금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볼 수 있으니 이곳이야말로 정말 신선이 사는 땅입니다. ... 포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이 서서 몸에 날개가 돌아 신선이 되어 날아오르는

25) 이형상, 이상규 외 역,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50~51면.

기분을 차마 말이나 글로 그려낼 수 없음이여. ... 우리 일행은 모두 속세의 인간들인데 신선의 땅에 들어와 수성을 바라보았소, 인간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삼생의 빛을 보상 받았는지 가슴속에 품은 생각이 상쾌하게 활짝 트이는구려, 참으로 가슴이 그지없이 넓어져 신선 놀이가 꿈속에서만 이루지 아니하였을 뿐이니 얻은 바가 어찌 크다고 하지 않으리오.

金縷의 <遊漢拏山記>에 드러난 신선세계의 모습이다. 한라산은 바다 한 가운데 있고,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한다. 제주는 ‘영주’라고 불렀다. 시적화자는 제주에 있는 한라산을 직접 올라가 보는 것이 소원이라며, 한라산에 가게 된 상황을 설명한다. 바닷길로 인해 濟州에 가기 어려운 상황은 쉽게 만날 수 없는 神仙이 사는 특별한 땅임을 강조한다. 또한, 시적화자는 한라산에 오른 자신의 감정을 신선이 사는 땅인 만큼 자신도 신선이 된 기분을 느끼며 한라산이 신선세계임을 드러낸다.

작품에 표현된 환상세계는 신선세계를 가리키며, 현실 일탈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들에게 仙界는 현실의 고통이나 억압이 없는 인간의 욕망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즉, 이 공간은 유토피아이자 환상 세계였다.

4) 안과 밖의 변증적 성격

제주는 소외된 공간으로 하층민의 공간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은 제주백성들이 갖는 공간을 ‘닫힌 공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주백성들에게 ‘닫힌 공간’은 안과 밖이라는 분명한 분리를 갖게 했고, 이 분리로 안과 밖의 변증을 드러냈다. 즉, 안과 밖은 分斷의 변증법으로 이 변증법의 명백한 기하학적 성격 때문에 우리들은 이를 메타포의 영역에서 작용시킬 때, 대뜸 사태의 진상에 맹목이 된다.²⁶⁾

안과 밖은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안과 밖이 변할 수 있다. 즉, 안은 밖

26)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355~356면.

이 되고, 밖은 안이 된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안과 밖의 기능은 모순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 배경에는 주체와 대상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주체였을 때 그곳은 안이 되고, 대상이었을 때 그곳은 밖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안과 밖의 형성은 서로 대립되는 두 향에 토대를 둔 것이므로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야 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안과 밖 사이에는 경계가 존재하며, 제주의 경계는 ‘바다’가 된다. 그 바다는 조선시대 인간의 힘만으로는 건너올 수 없는 아득한 곳이고, 바다 너머에는 ‘제주’가 있었던 것이다.

제주 구역은 저절로 구별되고 풍토가 유달리 특수하다. 관습과 내려오는 풍속은 번번하게 사람을 놀라게 한다. 특히 염라대왕의 녀트로 외지 문물을 펼치니, 점차 그것에 젖고 판도의 안에 붙여 苞茅를 제공하게 하였다. 잠시 가장 두드러진 것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²⁷⁾

(탐라는) 전라도 지역에 속하나, 따로 떨어져 있다.- 우리 동방의 기미와 더불어 땅을 달리하니, 마땅히 풍토가 저절로 다른 것이로다. 산천의 형국은 육지와 크게 다르다. 표면 지세는 평평히 구부러져 전부 산기슭과 등성마루가 없다. 아득하게 음사가 깔리고, 그 사이에 언덕과 골짜기가 형성되었으니, 그것을 늘 오름이라 칭한다. 산봉우리는 뾰족한 것이 없고 꼭대기는 고인 못이 많으니 평지가 솟아 올라 산이 된 것 같다.²⁸⁾

《남환박물》의 한 부분이다. 제주의 지형적 특성, 관습과 풍속 등이 어느 지역과의 다른 점을 부각시켜 언급하고 있다. ‘나누어 다르다’는 ‘구별’은 차이를 의미한다. 이 차이는 바다라는 경계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 경계로 다른 문화가 만들어졌다. 이 구별됨은 관습이나 풍속이 사람을 놀라게 할 만큼의 특이성을 갖는다. 이는 곧 외지 문물의 수용과도 연관이 있다. 즉, 제주의 지역적 특징은 토착문화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육지의 어느 지역에서조차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이는 바다라는 경

27) 이형상, 이상규 외 역, <誌俗>, 위의 책, 푸른역사, 2009, 103면.

28) 이형상, 이상규 외 역, <誌地>, 위의 책, 푸른역사, 2009, 48면.

계로 달라진 문화적 차이일 뿐만 아니라 문물수용에 대한 차이로도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사대부층들은 이를 소외로 여겨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소외의 문화로까지 변형시켜 버리게 된다.

제주 섬은 먼 바다 밖에 있어 갈라 놓은 지역이 본디부터 남다르고 특별하고 풍토도 매우 달라 백성들 습속이 낮설고 어긋나서 부끄러워할 만합니다. 특별히 임금님 은총이 밖으로 뻗어 나와 문물이 점점 젖어 들고 있습니다. 판도가 한 나라 안으로가 들어가 붙어서 넉넉하게 세공합니다만, 땅 넓이가 지극히 작고 태어나는 백성이 많지 않습니다. 농사짓는 땅은 놀리는 것과 경작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3천 2백목에 미치지 못하며, 인구는 3읍을 합쳐도 겨우 9천 2백호입니다.²⁹⁾

밖(사대부층, 육지)이 보는 안(제주백성, 섬)의 모습이다. 제주를 ‘섬’이라 하여 섬과 육지의 대립관계를 드러냈고, 먼 바다라는 경계를 나타냈다. 또한, ‘갈라놓은 지역’이라 하여 바다를 통해 경계 지어 구분한다. 더불어 제주를 남다르고 특별하고, 풍토가 매우 다르다는 구절로 지형적, 지리적 차이의 구별을 언급한다. 이런 구조는 대립관계로 안과 밖의 경계를 드러내면서 지형적, 지리적,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구문이다.

구분	주체	대상
계층	사대부층/ 정언유	평민층/ 제주백성
인물	외부인	내부인
공간	육지	섬
세계	현실	이상
경계(바다)	밖	안

이 표는 전체적인 제주의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29) 이형상, 이상규 외 역, <誌貢>, 위의 책, 푸른역사, 2009, 155면.

들어 계층, 인물, 공간, 세계, 경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이 글의 토대가 되는 작품은 사대부 정언유에 의해 창작되었고, 제주백성들이 대상이 되어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은 정언유와 제주백성이 된다. 그러나 <耽羅別曲>은 주체와 대상의 대립적 관계뿐만 아니라 주체의 입장에서 드러나는 대립되는 구도를 보이기도 한다. 즉, 목민관의 모습과 사대부의 여흥, 흥취의 모습으로 서로 변증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는 중앙의 제도가 미치지 않는 먼 곳에 위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곳 관리들은 眼下無人인 격으로 그곳 백성들에게 절대 군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주를 관리들에게 천하 없이 좋은 곳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리들은 제주로 좌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고, 왕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주체’는 대상이 사는 세상을 부조리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는 ‘주체’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한다. 따라서 대부분 중앙에서부터 온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善政을 베푸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던 것이다.

5. 맺음말

18세기 가사작품이 많이 창작된 이유는 사대부층에 있다. 18~19세기는 가사작품의 전성기로,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고, 전승된 시기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대부층은 가사작품을 창작하기보다는 한문으로 창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가사문학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대부층에서도 가사작품을 많이 창작하게 되었다. 즉, 향촌사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경화사족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대부층은 가사작품들을 창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대부층이 모두 창작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대체적으로 경화사족들보다는 향촌사족들의 작품이 많이 남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소외된 문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정언유는 사대부로서 대외적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동시에 어려운 제주의 생활상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대체적으로 제주의 어려운 실상을 널리 알려 제주백성들이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위하고자 했던 이유다. 그러므로 <耽羅別曲>은 작가인 정언유가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기행적인 요소를 토대로 글을 적고 있지만, 기행가사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耽羅別曲>은 제주의 간난한 생활을 토대로 지역적, 지형적,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 백성들의 지침서라고 볼 수 있다. 즉, <耽羅別曲>은 제주에 온 관리가 지은 작품으로 더 좋은 목민관이 되기 위해 제주의 지역적 특징과 생활상 등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은 작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글에 드러난 제주의 문화적 특징을 세 가지로 언급하였다. 첫째는 아담하고 특이한 제주의 역사, 지리, 자연환경과 관련된 부분, 둘째는 艱難한 제주백성, 셋째는 독특하고 풍요로운 제주풍속이다. 논자는 이 세 가지의 특징들로 제주문화를 엿볼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지리적, 지형적인 특성과 더불어 문화지리적인 현상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작가 정언유는 <耽羅別曲>을 기반으로 제주만의 독특한 특성을 언급하여 목민관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입증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朝鮮王朝實錄》

『역주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5.

金尙憲, 『南槎錄』, 1601년.

-단행본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 『공간의 시학』, 동문선, 2003.

강민경, 『조선중기 유선문학과 환상의 전통』, 한국학술정보, 2007.

류연석, 『한국시가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박승규, 『일상의 지리학-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묻다』, 책세상, 2009.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87면.

이원진, 김찬흡 외 역,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5.

이형상, 이상규 외 역,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정기철, 『한국 기행가사의 새로운 조명』, 역락, 2001.

조동일, 『지방문학사』, 서울대 출판부, 200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94.

-논문

김남형, 「정언유의 <耽羅別曲>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36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08.

김영화, 「제주 역사와 문학」, 『耽羅文化』 17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7.

신영현, 「문학적 영화읽기와 문화연구적 영화읽기: 영화 <장미의 이름>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2004, 211면.

염은열, 「기행가사의 공간 체험이 지닌 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

- 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윤석창, 「<耽羅別曲> 연구」, 『명지어문학』 12호, 명지대 국어국문학과, 1982, 81~97면.
- 윤치부, 「<耽羅別曲>의 구성과 표현」, 『제주교육대 논문집』 24, 제주교육대학교, 1995.
- 임형택, 「신발굴 자료를 통해본 가사의 재인식」, 『옛노래, 옛사람들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5.
- 정치영, 「문화·역사지리학에서의 지역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3집, 정신문화연구, 2007.
- 졸 고, 『장흥지역 가사문학의 문화지리학적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0.

투고일 : 2013년 7월 15일, 심사 : 2013년 7월 24일~8월 9일, 게재확정 : 8월 9일

〈Abstract〉

A study on cultural space at JeJu and
actualizing aspect on text
- Focused on 〈Tamrabyelgok〉 -

Park, Su-jin

This study uncovered meaning that Culture- geography of JeJu. This based upon the 〈Tamrabyelgok〉, a travel gasa of Jeju. I commented analysis of work from that literature to Culture by a subject of Work, a gasa work, a space. I think that jeju work mostly were based on a fable, a folk song and a exile work. but, 〈Tamrabyelgok〉 was not a fable, a folk song and a exile work. This work was made by Jung, un-you who a chieftain of Jeju. So that He would know that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work expressed living conditions Jeju people, and he displayed that treat Jeju's people subordinates kindly. He feel that loved about his life of a weary the lower classes. but he had his realistic and true sentiments. So, I think that this work refered to a refinement, a lyric gasa rather than a travel gasa.

At 〈Tamrabyelgok〉, I thought he explained a cultural peculiarity of Jeju by three kinds. 1) History, geography, scenery of Jeju that tidy and singular, 2) Be hard Jeju people, 3) An unique and an affluent Customs of Jeju. Such a peculiarity were based on a history book and a geography book that appeared an existence of Jeju. I explained an Culture- geography aspect by four kinds that was realized at

<Tamrabyelgok>. I divided that 1) A unique cultural inclination at Jeju 2) A avoided circumference(the people of the lower classes), 3) estrangement of a actuality and a fantasy, 4) A dialectical nature of inside and outside.

Such Culture- geographical trait was displayed various appearance of Jeju Space at 18 century. and this was exhibited a special thing and universality.

Key words: Tamrabyelgok, Culture- geography, Jeju literature, a special quality, Space, The circumference, Estrangement, Inside and outside

